



2009 세계 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출장기

ISU Four Continents Figure Skating Championships 2009 Vancouver



이번 출장은 캐나다 퍼시픽 콜리세움 경기장에서 치러진 2009 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의 코멘터리 운용이 주된 목적이었다. 하지만, 코멘터리 운용 외에도 밴쿠버가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 밴쿠버 현지의 인프라 및 자연환경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다.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 캐나다 밴쿠버

캐나다에서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제외하고, 올림픽이 두 번 더 있었다. 첫 번째는 1976년 몬트리올 하계올림픽이고, 두 번째는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이었다. 2010년 동계올림픽까지 세 번의 올림픽을 치르는 나라이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은 2010년 2월 1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8일 폐막식까지 밴쿠버와 휘슬러에서 7개 종목, 86개의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다. 이 대회에는 국민요정 김연아 선수가 참가할 예정인데 그녀가 펼칠 멋진 연기를 떠올리니 마음이 흐뭇하다.

출장이 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코멘터리 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퍼시픽 콜리세움 경기장에서 보낸 관계로 밴쿠버의 구석구석을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틈틈이 현지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캐나다의 주요 명소를 둘러보았다. 캐나다의 멋진 자연경관에 감탄하면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서 손색이 없음을 느꼈다.

동계올림픽의 개최지답게 휘슬러, 그로스 마운틴 등 세계적인 스키장이 있고,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많은 이민자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또,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어학연수 및 유학을 오는 곳이기도 하다. 그로스 마운틴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스키장을 둘러보았는데, 기념품 매장에는 이미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기념하여 수많은 공식 캐릭터 상품과 기념품을 준비해 두었다. 더 많은 경기장을 보고 싶었지만 시간관계상 일일이 둘러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 4대륙 대회가 치러진 콜리세움 경기장을 보면, 인프라 시설이나 경기장의 규모로 보았을 때 부족함이 없었다. 특히,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숙박시설 및 편의 시설이 중요한데, 이미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은 잘 갖추고 있었다.

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IS 제작 및 일본 FUJI TV UNI 제작

이번 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는 캐나다 CBC가 주관 방송사로서 국제 신호 제작에 참여했다.

코멘타리를 운용하면서 틈틈이 현지 중계차를 둘러보았는데, 2개의 중계차를 배치시키고, 1대의 중계차에서는 국제 신호 제작, 나머지 1대의 중계차에서는 UNI 신호를 제작했다. 코멘타리석에서는 CBC, FUJI TV, SBS가 자리를 잡았다. 특히, FUJI TV에서는 약 60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UNI 신호를 제작하였는데, 일본에서의 피겨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FUJI TV는 IS 신호와 UNI 신호를 적절히 배합하여 생중계를 진행했다. SBS는 CBC에서 만든 국제 IS 신호를 위성으로 수신 받고, 현장 코멘터리 신호를 ISDN과 POTS 라인으로 보내어 위성 IS 신호에 첨가하여 생중계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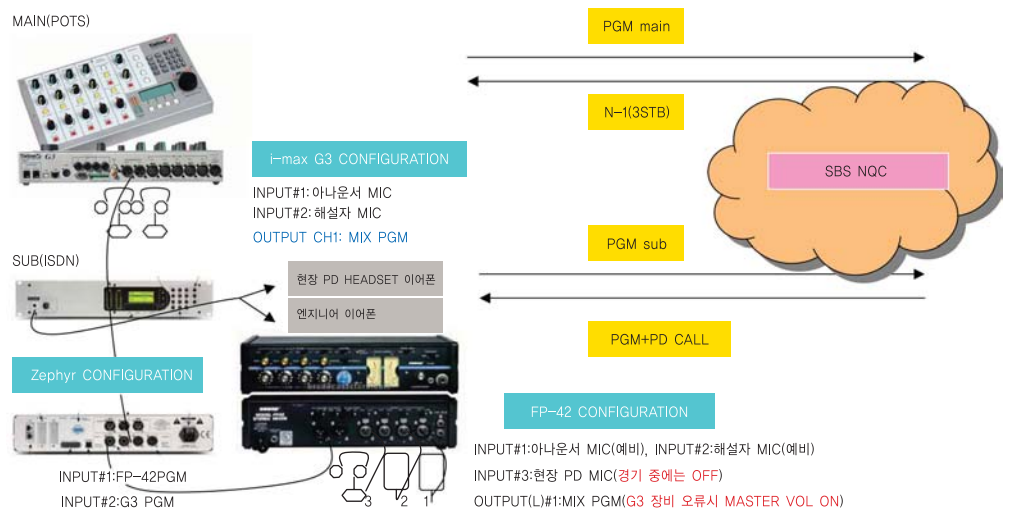


SBS 코멘터리 시스템 구성 및 운용

첫 해외 출장이라 긴장도 되고, 막막한 부분이 있어 예전에 코멘터리 해외 출장을 다녀온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우선, 출장 전에 현지에서 꾸밀 시스템 블록도를 작성하고 테스트를 했다.

보통 코멘터리 출장 전에 ISDN 라인 1개, POTS 라인 2개를 청약하는데, 1개의 ISDN과 1개의 POTS 라인은 AUDIO CODEC 장비에 물려서 사용하기로 하고, 현지 연락용 전화기는 1대로 운영했다. ISDN 라인을 청약하면서 ISDN 코덱 및 COMMENTARY BOX를 추가할 경우, 모델명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하며 미리 매뉴얼을 숙지하여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시스템을 꾸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장 전에 PD와 협의할 사항은 리턴으로 무엇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아나운서와 해설자 쪽에는 중계부조 N-1(중계부조 PGM에서 현장 PGM을 뺀 것)을, PD와 엔지니어는 ON-AIR와 PD CALL을 받을 것을 협의하고, NQC와 다시 시스템 구성을 논의하여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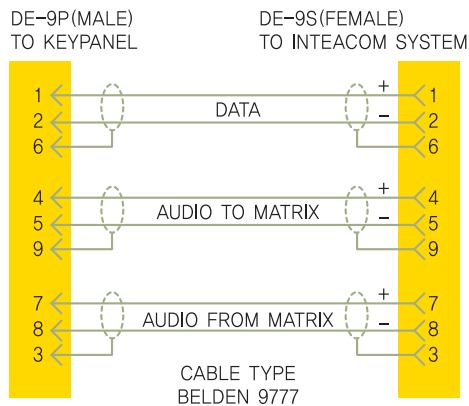


NQC 안에서의 코멘터리 신호 처리

NQC에서는 인터콤의 IFB(Interrupt Foldback) 기능을 이용하여, 현장에 N-1을 전화라인 코덱으로 주고, ON-AIR+PD CALL을 ISDN 코덱 쪽으로 주었다. IFB 기능은 실제 INPUT 포트는 정해져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상의 IFB 네임을 설정하여, 원하는 INPUT을 넣어줘서 사용하는 것이다.

NQC에서는 일단 AUX 포트라는 것을 이용하여 코덱에서 나오는 출력은 AUX 입력에, 인터콤 본체에서 나오는 출력을 AUX 출력으로 설정하고, AUX 포트의 TX, RX를 4WIRE의 인터콤 포트로 수용했다.

여기에서 AUDIO TO MATRIX는 AUX RX, AUDIO FROM MATRIX는 AUX TX이다. 즉, 외부의 코덱 장비가 AUX 포트에 수용됨으로써 외부의 KEYPANEL과 같이 작동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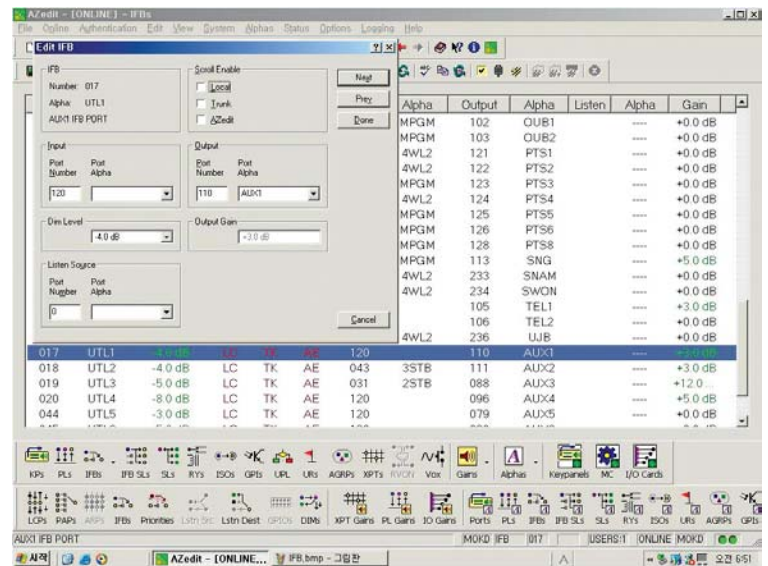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AUX1 포트는 INPUT, OUTPUT 모두 #110 포트이다. 하지만, UTL1이라는 IFB 네임을 활용하여, ON-AIR를 보내주고 싶을 때는 INPUT에 #119를 입력하고, 3부조 N-1을 보내주고 싶을 때는 3STB #43을 넣어주고, 순수하게 인터콤 기능만을 이용할 때에는 #120을 넣어주어서 사용한다. 입력에 넣어준 소스는 일단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토크 키를 눌렀을 때는 현재 넣어준 소스를 자르면서 CALL을 할 수 있다.

이것은 N-1+PD CALL로 인터콤 포트를 사용하고자 할 때, Dim Level을 적절히 조정하여, 평상 시에는 N-1이 계속 가고 있다가, 토크키를 눌렀을 때 얼마나 N-1이 잘리면서 PD CALL이 들어가는지 조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실제 방송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위성 신호와 딜레이를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보통 위성 신호의 오디오 채널에 IS 오디오 신호 외에, SBS의 코멘터리를 같이 실어도 지연문제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4대륙 선수권대회처럼 코멘터리 신호를 위성이 아니라, ISDN과 전화라인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지연문제가 중요하다.

그 이유는 위성 신호는 업링크, 다운링크 등 여러 경로를 거치면서 현장 PGM보다 실제로는 좀 더 지연된 상태로 수신되기 때문에, ISDN과 전화라인으로 수용한 코멘터리의 경우는 위성과 다르기 때문에 서로 립싱크 테스트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번 경우에는 ISDN과 전화라인 지연을 동일하게 맞추고, 현장 코멘터리 코디네이터가 현장 PGM 모니터를 보면서 선수의 점프, 착지 및 화면전환 부분에 멘트를 함으로써, PGM을 모니터하고 있던 NQC와 중계부조에서 지연을 맞춘다.



출장을 마치며

이번 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출장은 우리나라의 김연아 선수가 값진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국민들이 즐겁게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다행히, 코멘터리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통신문제가 없어서 사고는 없었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책을 생각해야 한다. 시스템은 최대한 단순하게 구성하여 현장 진행자들이 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뱅크버 출장은 업무를 떠나서 보다 넓은 시야를 갖게 해주었고,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